

신안산선 석수역 추가 출입구 설치 촉구 결의안

[운영희 의원 대표 발의]

의안번호	2220
------	------

발의일자 : 2022. 9. 6.

발 의 자 : 운영희, 고성미, 고영찬,
김용술, 도병두, 엄셋별,
이인식, 장규권, 정순기,
정재동 의원(10명)

1. 주 문

- 신안산선 역사 중 유일하게 출입구 1곳으로 건설 중인 석수역의 동측에 미래의 도시계획을 반영할 수 있는 추가 출입구 설치를 촉구함.

2. 제안이유

- 서울 서남권의 관문이면서 심히 낙후되어 있는 시흥3동 지역에서 건설 중인 석수역은 신안산선 역사 중 유일하게 출입구 1곳으로 건설 중에 있어 서울 도심과 수도권 서남부 지역의 광역교통문제 해소 및 광역철도망 구축, 경부고속철도 광명역과 수도권 전철 및 서울 도시철도 간 철도연계수송체계 구축이라는 커다란 목표와 대규모 사업개발로 인한 폭발적 인구증가에 따른 도심 교통난 해소 및 철도교통 편의 제공이라는 본래의 사업목적에 맞지 않음.
- 현재 석수역 동측에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중앙철재종합상가 시장정비사업’이 개시되어 ‘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 승인에 대한 추천 신청’ 검토 단계가 진행되고 있는 곳으로 인구밀집도가 높아지고 향후 대규모 주상복합단지가 예정되

어 이동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등 미래의 교통수요 반영이 필요한 실정임. 또한, 1곳의 출입구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중대시민재해로부터 이용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확보하고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 및 교통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역사 동측에 추가 출입구 설치 및 관련 공사비 국비 지원을 주무관청인 국토교통부 등 유관기관에 촉구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4. 이송처 : 정부(국토교통부)

5. 붙임 : 신안산선 석수역 추가 출입구 설치 촉구 결의안 1부

신안산선 석수역 추가 출입구 설치 촉구 결의문

서울 서남권의 관문이면서 심히 낙후되어 있는 시흥3동 지역에서 건설 중인 석수역은新安山線 역사 중 유일하게 출입구가 1곳으로 ‘서울 도심과 수도권 서남부 지역의 광역교통문제 해소 및 광역철도망 구축’, ‘경부고속철도 광명역과 수도권 전철 및 서울 도시철도 간 철도연계수송체계 구축’, ‘대규모 사업개발과 인구증가에 따른 도심 교통난 해소 및 철도교통 편의 제공’이라는 본래의 사업목적에 맞지 않고 있다.

新安山線은 2025년 개통되는 미래를 향한 신설철도임에도 불구하고 석수역은 출입구가 1곳뿐으로 근시안적이며, 도시계획으로 변화될 역 동측의 미래교통수요를 전혀 반영하지 못한 채 계획되어진 사업으로 주민들의 원성이 그칠 줄 모르고 있다.

실제로 석수역 동측에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중앙철재종합상가 시장정비사업’이 개시되어 ‘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 승인에 대한 추천 신청’ 검토 단계가 진행되고 있는 등 향후 서울시 승인절차를 거쳐 지구단위계획 변경 통한 대규모 주상복합단지가 계획되어 있다. 따라서 이러한 미래의 교통수요를 반드시 건설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또한, 1곳의 출입구로 인해 자칫 발생할 수 있는 중대시민재해로부터 이용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온전히 확보하고,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 및 교통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출입구 설치 및 관련 추가비용의 국비 지원이 매우 절실한 실정이다.

이에 구민의 민의를 대표하여 전달하는 우리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 모두는 23만 금천구민의 뜻을 모아 석수역 동측에 추가 출입구를 설치하는 것으로 뜻을 모아 국토교통부에 강력히 요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우리 금천구민은 신안산선의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사업추진과 역사 이용 주민의 안전과 교통편의 도모를 위해 석수역 동측에 추가 출입구 설치를 촉구한다.

하나, 국토교통부 및 유관기관은 추가 출입구 설치 논의가 조속히 시작될 수 있도록 협력하며, 관련 추가비용은 국비로 지원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촉구한다.

하나, 국토교통부는 수도 서울의 서남권 관문도시의 미래지향적인 발전과 균형개발을 위하여 23만 금천구민의 뜻을 받들어 신안산선 석수역 동측 추가 출입구 설치를 조속히 시행할 것을 촉구한다.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 일동